

1월 고용보험 가입자 31만6000명 ↑ ...증가폭은 축소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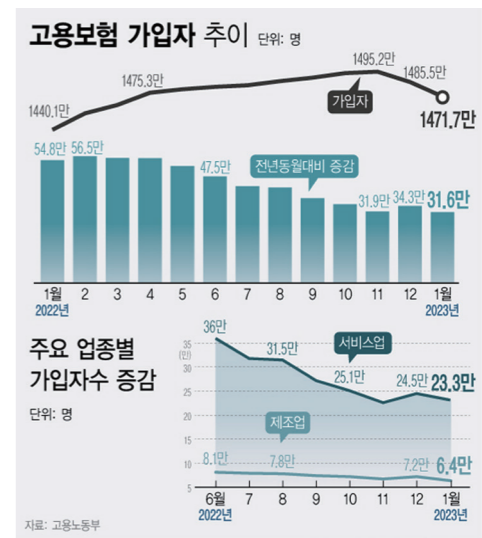
고용부, '2023년 1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작년 12월 증가폭 확대됐으나 다시 축소
29세 이하 가입자 5개월 연속 감소 지속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31만여 명 늘었지만 증가폭은 다시 둔화했다.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도 부진을 지속하며 5개월 연속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월 노동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471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1만6000명(2.2%)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폭을 확대한 이후 축소로 돌아선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해 2월 56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9개월 연속 둔화세를 지속했다. 9월 이후부터는 30만명대로 줄며 11월에는 31만9000명 증가에 그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4만3000명 늘며 10개월 만에 증가폭을 확대했는데, 올해 들어 다시 그 폭이 줄어들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소폭 둔화된 것은 올해 대내외 경제 전망이 심상찮은 가운데,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의 가입자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조업 가입자는 372만9000명으로 6만4000명 증가했다. 2021년 1월 이후 25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증가폭은 지난해 12월(7만2000명)보다 축소됐다.
 제조업 내에서는 전자통신, 금속가공, 기계장비,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증가한 반면 섬유, 의복·모피, 음료 등은 감소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007만8000명으로 23만3000명 증가했다. 돌봄·사회복지 및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대면활동 정상화 등으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가입자가 증가했다. 숙박·음식업도 3만9000명 늘었다.
 다만 도소매업은 5000명 줄며 감소로 전환했다. 종합소매업과 무점포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9세 이하 가입자가 4만명 줄며 5개월 연속 감소했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지난해 9

월(-9000명), 10월(-1만7000명), 11월(-2만9000명), 12월(-3만명)등으로 감소폭을 확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청년층 인구 자체가 적어진 데다 20대 취업자가 선호하는 도소매, 보건복지, 공공행정 일자리 줄면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이의 연령대에선 모두 가입자가 늘었다. 60세 이상(20만2000명), 50대(10만7000명), 40대(2만9000명), 30대(1만9000명) 순이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소폭 늘면서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8개월 연속 1조 원 아래를 기록했다.
 지난달 지급액은 전년 동월보다 350억원 감소한 8464억원이다.
 고용부가 매달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



를 대상으로 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제외된다.
 최이슬 기자

남양유업, '프렌치카페 스테비아' 출시 3개월 만에 3백만잔 팔렸다

설탕 대신 천연감미료 스테비아 사용



남양유업은 당류와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기존 믹스 커피 맛을 구현한 프렌치카페 스테비아가 출시 3개월 만(22.10~12월 제품 출고 기준)에 350만잔 이상 판매됐다고 13일 밝혔다.

믹스 커피는 오랜 시간 소비자에게 많은 사

람을 받아온 제품이다. 커피 전문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카페를 즐기는 문화가 일상이 되면서 믹스 커피를 대신해 아메리카노나 라떼 등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많아졌지만, 믹스 커피의 '달달한 맛'을 여전히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다.

다만 믹스 커피의 이러한 단맛 때문에 당 걱정에 앞서 먹는 데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도 있다. 특히 믹스 커피를 오랜 시간 마셔온 세대는 당에 대한 부담을 더욱 느끼는 경향이 있다.
 최근 당 섭취를 줄이고 건강 관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식품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저당 및 무당 관련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당류와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달달한 믹스 커피가 있다. 믹스 커피를 좋아하는 부모님 혹은 주변 지인에게 추천하기 좋은 제품이다.
 지난해 10월 남양유업에서 출시한 '프렌치 카페 스테비아'는 기존 프렌치카페 믹스 커피에 비해 칼로리를 절반으로 줄이고 당류가 제로인 것이 특징이다. 당류나 콜레스테롤이 없어 '제로 슈거' 제품에 많이 활용하는 천연감미료 스테비아를 설탕 대신 넣었기 때문이다.

설탕을 빼면 믹스 커피 맛이 연해질 것이라 일부 소비자들의 생각과 달리, 스테비아는 당류는 '제로'인 동시에 설탕의 200배 이상의 단맛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테비아 커피가 기존 프렌치카페 믹스 커피가 가진 부드럽고 풍부한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기존 제품 라인과 동일하게 특수 설계한 2가지 추출방식의 '듀얼 프레스(Dual-Press)' 추출 공법을 사용해 커피 맛과 향의 밸런스를 잡고, 커피의 아로마를 분리해 향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신선한 우유로 더 부드러운 맛을 강조했다. 특히 프림 속 첨가물 카페인 대신 무지방 우유를 넣은 특허 공법으로 깔끔하고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다.

김재환 기자

레고, '반지원정대 리븐델세트' 내달 8일 출시



레고그룹은 '레고 반지의 제왕 리븐델' 세트를 내달 8일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글로벌 컨슈머 프로덕트와 협업을 통해 탄생했다. 총 6167개의 브릭으로 반지의 제왕 3부작의 중심지이자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한 원정대가 결성된 리븐델의 풍경을 영화 속 장면을 재현했다.

레고 반지의 제왕 리븐델 세트는 3개 구역으

로 구성됐다. 세트의 중심이 되는 중앙 건물에서는 프로도가 나즈굴의 공격에서 건강을 회복한 뒤 엘프 영주 엘론드의 회의장에서 반지원정대가 결성되는 장면을 재현할 수 있다.

건물 양쪽으로는 이를 없는 다섯 전사를 가리는 조각상으로 꾸며진 엘프의 탑과 정자 아래 세워진 다리가 자리잡고 있다. 프로도, 간달프, 아라곤, 레골라스 등 9명의 반지 원정대 멤버 전원을 비롯해 발보 배긴스, 엘론드, 아르웬 등 총 15개의 주요 캐릭터 미니피규어도 제공된다. 스텝, 부러진 나르실, 난쟁이의 도끼 등의 액세서리도 있다.

세트의 완성품 크기는 가로 75cm, 세로 50cm, 높이 39cm다. 내달 8일 온·오프라인 공식 레고스토어를 통해 정식 출시된다. 레고 무료 VIP 멤버십 회원은 내달 5일부터 7일까지 공식 온라인몰에서 선주문이 가능하다.

뉴스

위니아, 2023년형 에어블 에어컨 출시

'AI 스마트 초절전 냉방' 기능 사용시 전력 50% 절감

위니아가 초절전 기능을 적용한 2023년형 '위니아 에어블' 에어컨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제품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전기 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개발됐다. 'AI 스마트 원스텝 냉방' 기능은 파워 냉방 모드로, 빠르게 희망 온도에 도달한 뒤 절전모드로 자동 변환된다. 일부 모델은 'AI 스마트 초절전 냉방' 기능이 적용돼 일반 냉방 중 소비되는 최대 전력량 대비 50%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있다.

혁신적인 '3D 서라운드 냉방' 기술을 적용해 어느 공간에서든 시원하고 강력한 바람을 느낄 수 있다. 상단의 바람 창은 직선으로 강력한 바람이 나와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추고, 하단의 바람창 좌우 측면에서는 은은한 바람이 나와 몸에 직접 닿는 냉기를 피하면서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또 '아기모드Plus'는 찬바람에 민감한 아기를 위해 잔잔한 유아풍을 제공한다. 집에 사람이 없을 때, 반려동물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해주는 '벅케어



모드'도 추가됐다.

위니아는 이와 함께 전력량 체크, 대기전력 차단 등을 기능을 제공하는 '위니아 웨이브 컬러'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벽걸이형 에어컨 '캔버스'도 함께 선보인다.

2023년 위니아 에어컨은 벽걸이형 29종, 스탠드형 24종이다. 가격은 출하가 기준 70만원대부터 300만원대다. '위니아e샵'을 비롯한 위니아 전문점, 온라인 쇼핑몰과 백화점, 양판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서선욱 기자

락앤락, '설레이 봄' 한정판...“유리용기·텀블러·쁘띠웍”

락앤락은 봄을 맞아 '설레이 봄' 에디션을 한정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락앤락의 베스트셀러 라인에 그린라이트 색상을 적용해 봄이 오는 설렘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프리미엄 내열유리용기 '탐클라스', '메트로 투웨이 텀블러', '데코르 IH 뿌띠웍' 등 대표 제품 3종으로 출시됐다.

탐클라스는 영하 20도부터 400도까지 견딜 수 있는 내열유리 소재다. 몸체를 제작해 병장·냉동실은 물론 식기세척기와 에어프라이어, 오븐 등에서도 파손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뚜껑은 BPA FREE 트라이탄 소재로 빔새와 색 배합이 적다. 5mm 히든 캡과 안정적인 적용이 가능한 구조도 특징이다.

메트로 투웨이 텀블러는 캡을 실내용과 휴대용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해 활용도를 높였다. 475ml의 용량으로 그런데 사이즈 음료도 담을 수 있다. 입구가 넓어 세척이 편리하다. 자체 테스트 결과 보냉력은 최대 37시간(8도 기준), 보온력은 최대 8시간(60도 기준) 지속된다.

데코르 IH 뿌띠웍은 레트로 스타일 디자인 쿡웨어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 인덕션, 가스레인지 등 모든 열원에서 조리할 수 있다. 눌러붙지 않는 강력한 논스틱 코팅을 적용

베스트셀러 라인에 봄의 설렘 담아낸 에디션



했다. 이번 에디션은 뚜껑에 링크 모양의 스틱홀을 만들어 끊어 넣음을 방지했다.

설레이 봄 에디션은 전제품 디자인 박스 패키지로 제작됐다. 탐클라스는 봄 에디션 카드도 함께 받는다.

락앤락은 이번 에디션 출시를 기념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3종 세트 모두 구매 시 추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슬비 기자

삼성전자, 혼수·이사 특별 기획전 개최

삼성전자가 결혼·이사 절을 맞아 '혼수·이사 특별 기획전'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다음달 31일까지 전국 삼성 디지털프라자에서 TV·냉장고·세탁기·정수기·공기청정기 등 프리미엄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 대비 혜택을 제공한다. 300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11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는다. 600만~900만·1200만~1500만원 이상 구매 시 각각 20만·30만·40만~50만원 상당의 포인트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웨딩 브랜드와 이사 브랜드와 함께하는 차별화된 올인원(All-In-One) 서비스 '비스포크 웨딩클럽', '비스포크 뉴클럽'과 연계한 혜택도 제공한다.

기획전 기간에 비스포크 웨딩클럽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제품과 모델 수도 늘었다.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총 12개 품목 167개 모델로 기존 9개 품목 101개 모델 대비 확대됐다. 지급 포인트는 구매 제품에 따라 2만원부터 최대 25만원이다.

정승호 기자